

두오다(Dhuoda)의 『리베르 마누알리스』(*Liber Manualis*) — 한 카롤링거 여인이 아들에게 주는 교훈서*

김재현 (한국고등신학연구원/호남신학대학교)

“각자는 그의 동떨어진 길을 가고,
불만과 투쟁이 가득하다.
한 때는 풍부함과 행복이 사방에 있었는데,
이제는 사방에 부족함과 슬픔이 있다.”

I. 서론: “이제는 사방에 부족함과 슬픔이 있다!”

중세 초기 북유럽에 기독교의 안정과 확장을 가져 온 샤를마뉴(Charlemagne)의 시대는 오래 지속하지 못했다. 대머리 샤를르(Charles the Bald)와 로타르(Lothar)와 루이(Louis)를 포함한 샤를마뉴의 손자들은 영토와 왕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논문임(KRF-2008-358-A0060)

권을 놓고 피 흘리는 싸움을 계속했다.¹⁾ 두오다의 남편 베르나르(Bernard of Septimania)는 샤를마뉴 이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프랑크 왕조의 고위직에 속해 있었다. 경건왕 루이(Louis)는 831년부터 자기 아들들의 반역을 막 아내기 위해 베르나르를 시종으로 삼았다. 이 같은 불안한 시대에 고위직을 지낸 베르나르는 루이 사후 정치적인 어려움에 겪게 되었다. 베르나르의 정치적 후견인인 루이가 840년에 죽자 왕국이 급격하게 불안해 졌기 때문이다. 841년 폰트네이(Fontenay-en-Puisaye) 전투 이후 베르나르는 제국의 서쪽을 맡은 샤를르의 지배를 받아드릴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루이 밑에서 시종을 지냈던 베르나르는 더욱 큰 어려움을 맞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베르나르는 자신의 충성을 증언하기 위해 이제 겨우 14세였던 자신의 아들 윌리엄을 17세에 불과한 샤를르에게 보냈다. 베르나르는 이전에 자신이 누린 영예를 되찾기를 바랐지만 역사는 그에게 그러한 행운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심지어 베르나르 자신의 친 자매마저 마술사로 처벌되었다.²⁾

『리베르 마누알리스』(*Liber Manualis*)는 이와 같은 정치적 혼란기에 두오다(Dhuoda)라는 여인이 남편 베르나르와 두 아들과 떨어져 살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의 글을 모은 책이다. 두오다는 이 책을 841년 11월 30일에 쓰기 시작해 842년 2월 14일에 마친 것으로 보인다(Prologue, 10.2).³⁾ 이 책

- 1) 843년 베르딩(Verdun)조약의 결과로 루이는 동부지역, 샤를르는 서부지역, 로타르는 북에서 남쪽에 이르는 지역을 확보했다.
- 2) 이 시기에도 정치적인 대적자를 종종 마녀로 몰아 없앴다. 경건왕 루이의 두 번째 부인 이자 샤를르 왕의 어머니인 주디스(Judith)도 마녀와 간음을 행한 자로 고발되었다. 로타르(Lothar)는 베르나르의 자매(Chalon-sur-Saone의 수녀) 제르베르가(Gerberga)를 요술사로 처벌했다.
- 3) 본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본을 사용했다. *Manuel pour mon fils; introduction, texte critique, notes par Pierre Riché; traduction par Bernard de Vregille et Claude Mondésert, S.J.* (Paris : Éditions du Cerf, 1975); *Handbook for William: a Carolingian woman's counsel for her son, translated and with an introduction and afterword by Carol Neel* (Washington, D.C. :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c1999); Marie Anne Mayeski, *Dhuoda: Ninth Century Mother and Theologian* (Scranton, Pa.: University of Scranton Press, 1995). 이 논문의 ()에 기록한 숫자는 리

은 어린 시절 정치적 인질로 헤어진 두 아들을 위한 도덕적, 영적, 봉건주의적 행위에 대한 안내서일 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남편을 위해 경제적 정치적 역할을 대신해야 했던 두오다라는 한 여성의 자서전적 작품이다. 이 책은 두오다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느낀 두려움과 두 아이를 출생한 후의 삶의 여정을 개괄적으로 그렸다. 동시에 모성애적인 염려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남편에 대한 염려 못지않게 자녀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자신의 병 때문에 둘째 아이를 위한 기도서를 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슬픔을 자아내기도 했다(Prologue, 10.1,2,4). 두오다는 이 책을 통해 당대 시대와 문화에 관한 이해를 여성의 시각으로 남겨 주었다. 그녀는 한때 비시고트 족의 땅이었던 스페인과의 접경지역 쉐티마니아를 카롤링거 왕조의 이름으로 지켜나가며 자신의 처지를 애달르게 읊었던 것이다.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서양 중세 여성들의 삶과 사상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중세 초기 연구가 아직까지 미진하듯, 중세초기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걸음마 단계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는 마치 중세 전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카롤링거 시대와 인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자료와 인물에 대한 일차적인 소개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일반적인 중세초기 연구 현실과 흡사하다. 그나마도 카롤링거 시대를 비롯한 중세 초기 연구가 전체적으로 군주와 종교지도자들, 그것도 남성 위주로 진행되어 왔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평신도들의 목소리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리쉐의 연구와 함께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두오다의 『리베르 마누알리스』가 그 좋은 예이다. 이 책은 9세기 카롤링거 시대 상황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리쉐가 1975년 행한 라틴 본문연구가 두오다 연구에 기초를 제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대한 기독교적 분석은 아직까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본인은 이 책에 대한 일차적인 분석을 통해 두오다라는 한 여성을 중심으로 9세기의 여성

쉐가 만든 장과 절을 뜻한다. 두오다는 이 책을 842년에 마쳤고, 전쟁이 진행 중이던 843년에 윌리암에게 보낸 것 같다.

이해와 당대 신학적 상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두오다가 쓴 『리베르 마누알리스』를 우선적으로 분석하겠다. 3장에서는 이 책을 통해 나타난 두오다의 당대 사회와 신앙에 대한 인식을 몇 개의 주제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리베르 마누알리스』에 대한 분석

1. 본문 구성

두오다의 『리베르 마누알리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리쉐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 책은 원래 명확한 장절의 구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1975년 리쉐(Pierre Riché)의 연구 이후, 『리베르 마누알리스』는 전체 11권 70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독자들에게 의해 읽혀지고 있다. 리쉐의 구분에 따른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문- 저자에 대한 이야기와 글을 쓰게 된 이유

1권 -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2권 - 삼위일체의 신비(믿음, 희망, 사랑, 기도)

3권 - 사회적인 질서와 세속적인 성공

4권 - 도덕적인 삶

5권 -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는 것

6권 - 지극한 복들이 갖는 유용성

7권 - 신체와 영혼의 죽음

8권 - 기도하는 법과(죽은 자를 포함)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에 대하여

9권 - 숫자들을 해석하는 것

10권 - 작품의 중요 요점 정리와 저자에 관한 보완 설명

11권 - 시편을 음송하는 것이 갖는 유용성

이 책을 구성하는 11개의 장은 서로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나름대로 튼튼한 구조를 갖고 설득력 있게 전개되고 있다. 서문은 두오다의 전체적인 작품 의도와 자신과 아들이 당면한 상황을 담고 있다. 2권은 윌리암에게 하나님과 삼위일체 같은 종교의 근본적 요소들을 교훈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3권과 4권에서는 세속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아들 윌리암이 취해야 할 행동을 담았다. 3-4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5권에서 9권에 이르는 부분에서는 천상과 지상의 삶들이 갖는 관계, 기도와 독서를 통해 세속적 삶에서 발생하는 악을 물리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두오다는 제 10장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자서전적 자료를 추가했다. 제 11장에서 그녀는 시편을 읽는 것이 가져오는 영적 유익을 설명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 두오다는 이러한 글을 쓰기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스스로 얼마나 큰 마음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윌리암에 반드시 수양해야 할 내용들을 조목조목 담고 있다.

2. 두오다가 사용한 자료: 성경과 교부들

편지 형태를 통해 아들을 교육시킨 두오다의 문학적 재능은 어디에서 연유했으며, 그녀가 자신의 저작을 위해 어떠한 자료를 사용했을까? 두오다의 책은 중세기독교 역사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라틴어로 쓰여졌다. 물론 부유한 군사 귀족이나 군주의 아내들이 이러한 교훈적인 책을 접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예를 들면 윌리암과 베르나르의 상관 샤를르 왕은 로만어(*lingua romana*)에 익숙했다. 그리고 왕궁의 도서관시설과 규모가 큰 수도원에 소속된 도서관들은 기독교 전례와 성경에 대한 책들을 적지 않게 갖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두오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성경과 교부들의 글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기에는 어렵지 않다. 물론 이 시기에 여성이 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남기기란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여성이 교부들과 성서의 여러 자료를 능통하게 인용하여 저술한 책은 결코 흔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의 신분과 학문적

깊이를 반영하듯, 두오다는 성경의 글귀와 교부들의 저술을 다양하게 인용했다. 네 개의 철자로 이루어진 ‘아담(ADAM)’이 갖는 의미를 밝히는 과정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언어적인 기교를 부리기도 했다(9.2). 그리고 숫자가 갖는 의미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수단을 보여 주기도 했다(6.4, 9.2). 그녀가 사용한 자료들을 볼 때, 우리는 두오다가 당대 수도원의 학습여건이나 귀족들에게 제공된 자료에 익숙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성경구절 중에서 그녀는 창세기, 시편, 욥기, 지혜서, 신약(특별히 바울 서신들)에 나타난 구절들을 주로 인용했다. 신약과 구약 중에서는 구약, 특별히 시편을 비롯해서 다윗과 관련된 부분에 치중했다. 이는 아마 군주를 섬기면서 바른 지도자 상을 추구한 아들 윌리엄의 상황을 깊이 반영했을 것이다. 그녀는 알쿠인(Alcuin)에 의해 편집된 볼게이트(Vulgate) 성경을 주로 참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두오다는 히에로니무스, 아우구스티누스, 그레고리우스, 알쿠인, 그리고 기타 성인전(聖人傳)들을 이용했다. 그리고 프루덴티우스(Prudentius), 포르투나투스(Venantius Fortunatus), 투르의 그레고리우스(Gregorius of Tours) 같은 기독교 시인들에 대하여도 능통했음을 우리는 그녀의 저서를 통해 알 수 있다. 비록 깊은 수준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두오다는 문법학자 도나투스(Donatus)와 세빌의 이시도르(Isidore of Seville)의 작품에 나오는 기원론과 숫자에 대한 논리(3.8, 9.1)도 발전시켰다. 그녀가 사용한 자료를 고찰해 볼 때 우리는 두오다가 당대 카롤링거 왕조의 주도적 학자인 요크의 알쿠인의 영향을 비롯해서 동시대인들의 작품과 성경을 광범위하게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⁴⁾

4) 당대 학자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Ambrosius Autpertus, Jonas of Oreleans, Paulinus of Aquileia, Rabanus Maurus, Lupus of Ferrieres. 그녀는 많은 자료를 사용했지만, 인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론을 그녀 스스로 “contextus”라고 불렀다. Rosamond McKitterick, *The Carolingians and the Written Word* (Cambridge: Cambridge UP, 1989), 223-225.

3. 독서와 덕행을 강조한 ‘엔케이리디온’

윌리암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를 가진 이 저작의 문학적 장르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두오다가 자신이 사랑하는 어린 아들의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교육을 위해 이 책을 기록했다는 점은 확실하다. 이 책의 문학적 장르와 관련해서 ‘엔케이리디온’(encheiridion, *speculum*) 이미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엔케이리디온’은 그리스어로 도덕적인 안내서나 거울을 의미한다. 사람이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듯이, 두오다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교육과 수양의 추구에 도움이 되기를 의도했다.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나는 돕고자 한다’와 ‘나는 바란다’(volere)와 같은 동사의 사용은 이러한 교육적 측면을 잘 보여주는 점이다. 특히 이는 두오다가 ‘마누알리스’(Manualis, *encheiridion*의 라틴어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서론(Prologue)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교육적 강조점은 두오다가 윌리암으로 하여금 이 책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볼 것을 독려한 한편 윌리암의 동생을 비롯한 그의 동료들 역시 참조하도록 한 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⁵⁾

교육에 대한 두오다의 강한 관심은 무엇보다 독서와 덕에 대한 강조를 통해 자세히 드러난다. 두오다는 서론에서부터 독서(*lege*)의 중요성과 그 힘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정치적 불모로 잡혀 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윌리암이 독서를 위한 시간을 실제로 얼마나 가질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두오다는 자신의 책 전체를 통해 독서의 중요성을 무수히 강조했다. 그녀는 ‘레게레’(*regere*, 읽다), ‘볼베레’(*volvere*, 펼치다), ‘페르스쿠르타레’(*perscurutare*, 철저히 조사하다) 같은 다양한 개념을 통해 독서란 즐거운 것임을 밝히는 동시에 독서를 통해 아들 윌리암이 스스로의 구원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인 자신의 이미지를 인식하기를 원했다(10.1.6). 교부들이 독서를 진리의 기초이자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거울로 삼았듯이, 두오다는 책을 경건과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거울로 삼았다.

5) 아마도 두오다는 어거스틴의 작품 *Encheiridion on Faith, Hope, and Love*를 염두에 두었을 지도 모른다. 우리는 엔케이리디온과 같은 문학적 장르를 Alcuin, Jonas of Orleans, Paulinus of Aquileia 같은 당대 인물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독서와 함께 두오다는 ‘엔케이리디온’의 방법으로 덕행을 강조했다. 그녀가 강조한 덕은 정의와 용기에 대한 존귀하고, 군사적이고, 기독교인다운 행동을 의미했다. 이 책 제 5권에서와 같이 두오다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을 통해 덕과 이에 반대되는 악을 설명했다(5.2-8). 또한 이 책은 덕 안에서 과부와 고아를 보호할 것, 봉건적 권위를 존중할 것,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교회와 사제를 존경할 것,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악과 덕에 대한 가르침 등을 두루 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덕을 강조하면서 두오다가 세속적 영역과 영적 영역의 가치를 절묘하게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결혼과 가족을 포함해, 세속적인 일상적 삶에 대해 두오다는 긍정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부여했다(4.6-8). 즉 평신도의 삶 역시 수도사들과 성직자들의 삶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지름길이 될 수 있었다. 예컨대 전사로서의 윌리엄의 삶은 주교나 수도사들과 같은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었지만, 이러한 세속적인 삶은 영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즉, 왕이 이를 수 있는 세속적인 영역에서의 성공은 영적인 영역이 반겨주지 않는다면, 결국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으며 그 성공 역시 중요하지 않다(5.1). 이런 의미에서 천상의 영역(1.5)과 지상의 영역(4.8)은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엔케이리디온’의 측면에서 강조했다(3.3). 비록 귀족집안이지만 일반신자였던 한 여성의 입장에서 종교적 영역과 세속적 영역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두 영역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4. 어머니와 아들: 두오다와 윌리엄

교육적 측면을 강조한 이 책의 독자를 밝혀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두오다가 의도했듯이 일차적인 독자는 첫째 아들 윌리엄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막 태어난 동생 베르나르(1.7, 2.4, 10.1, 10.4)와 윌리엄의 주변에 있

던 사람들 역시 보다 넓은 의미의 독자 군으로 볼 수 있다.

책을 저술하고 만든 두오다의 관심이 윌리암에게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두오다는 아직 어린 윌리암이 자신이 지은 책을 손에 지니고 다니기에 쉽도록 배려했고, 책의 내용도 부모를 떠나 있어야 한 윌리암의 교육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두오다는 세속적 삶을 현장에서 생존해야 하는 윌리암에게 군주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종교적이고 영원한 삶의 폭넓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윌리암의 영성을 가장 강조했다. 따라서 두오다는 특히 다음과 같은 주제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 삼위일체의 신비, 책을 모으고 읽는 것, 지극한 복들, 성령의 일곱 가지 선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 숫자 상징론에 대한 정교한 체계, 형제적인 존경과 기도의 가치와 같은 종교적이고 영성적 요소들을 강조했다.

두오다의 종교적인 삶에 대한 강조는 자연스럽게 당대 교회와 세속적인 삶으로 확대되었다. 두오다는 여성이었지만 알쿠인과 같이 교회를 염려했다. 그녀는 덕과 권위에 근거해 복음을 이해하고 가르쳤고, 자기 주변의 남자들을 간음, 음란, 남색, 그리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낸 긴 여행과 전쟁에서 보호하고자 했다. 그녀는 동시에 윌리암이 그의 주인이요, 왕인 샤를르에게 가지고 있던 의무감을 항상 주의 깊게 살피도록 강조했다. 즉, 두오다는 아들 윌리암이 자신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궁정에서 동료들과 형제애적 경건을 강화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주인인 샤를르에 대한 존경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가족과 사회에 대한 두오다의 이러한 소망은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두오다의 이러한 강조점이 오히려 아들 윌리암으로 하여금 정신적 갈등을 일으키게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버지 베르나르의 정치적 역할 역시 윌리암에게 적지 않은 고민을 지속적으로 안겨 주었다. 윌리암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반항하다 결국 처형당하고야만 사실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⁶⁾

6)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닐(Necl)은 둘째 아들이 856년 샤를르 암살을 시도한 베르나르 플랑트레블뤼(Bernard Plantrevelue, Hairyfoot)라고 제안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클뤼니(Cluny)의 기원과 관련된 아퀴탱 지역을 만들어낸 윌리

III. ‘신학적 부스러기를 훑아먹는 개’인가, 9세기 평신도 여성 신학자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리베르 마누알리스』의 본문 이해와 함께 이 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두오다의 자료 이용, 문학적 특징과 장르와 같은 외형적인 특징, 그리고 두오다와 아들 윌리암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직 여성들의 작품 활동이 많지 않던 시대에 두오다가 자신이 처한 절박한 상황과 탄탄한 신앙을 반영하는 귀중한 글을 남겼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기독교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깊이 분석해 본다면, 그녀의 저술이 갖는 의미와 위치를 어떤 식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중세의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그러했던 것과는 달리 두오다는 수녀원장도 아니었고 그 흔한 수녀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특정 종교기관의 주된 후원자 역시 아니었다. 또한 죽음 이후에도 그녀는 성인(聖人)의 지위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더군다나 그녀가 남긴 책은 종교공동체를 위한 규칙서도 아니었고 자기 가족을 넘어선 공동체적 구성원을 일차적인 청중으로 갖고 있지도 않았다. 많은 종교적인 지침서나 교훈서와 달리 그녀의 책은 ‘세속적인’ 책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이러한 외형적인 분류와 이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책은 단순히 윤리적인 지침서만은 아니었다. 이 책이 전문 신학자나 수도자의 결과물이 아니었음에도 종교적인 가르침과 지침을 발견해 내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일상사와 종교 문화의 구별이 쉽지 않았던 시절, 두오다의 작품은 종교적 가르침이 일반인의 삶에 얼마나 깊이 녹아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은 이제 막 북유럽에 뿌리를 내리던 카롤링거 시대 기독교에 대한 이해, 특히 9세기 기독교를 묘사하는 작품들이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가족과 사회적 질서,

암(William the Pious)의 선조였을 것이다. 9세기 당대 귀족들의 가장 큰 덕목 중의 하나가 종교적인 헌신을 고양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윌리암의 가문이 보여준 종교와의 상관성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사실, 베르나르의 아버지(William of Gellone) 역시 당대 남부 프랑스에서 가장 큰 수도원을 설립했고, 자신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곳에서 여생을 마쳤다.

종교적 정황에 대한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두오다의 9세기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신학적 부스러기를 훔아 먹는 개?

두오다는 전문 신학자나 구도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녀의 성경해석은 교부들을 비롯한 전통적인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12세기 힐데가르트(Hildegard of Bingen)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 여성저자들이 전통적인 신학적 견해를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두오다가 수도원이나 종교기관의 구성원으로 규범적인 성경해석을 의무적인 측면에서 따라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녀는 특정한 구절을 보다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었다.

『리베르 마누알리스』제 1권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15장 21-28절에 대한 해석은 두오다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동시에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에게 자신의 딸을 낫게 해 달라고 간청하면서 시작된다. 간청하는 당사자가 이방 여인임을 안 예수는 불쌍히 여겨 줄 것을 간청하는 이 여인을 한 마리 개에 비유한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낙망하지 않고 이방인인 자신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개로 스스로 비유했다. 결국 이 이방 여인은 예수에게 믿음을 인정받게 되고 자신의 아픈 딸이 고침을 얻게 되었다.

일명 ‘시리아-페니키아계 여인’(Syro-Phoenician woman)으로 알려진 이 구절에 대한 두오다의 해석은 몇 가지 이유에서 우리의 주목을 끈다. 두오다는 이 성경 본문을 하나님의 자녀와 이방인의 자녀라는 대칭적 구도로 보는 대신 성례전적(聖禮典的)인 의미를 기초로 하여 예전적 의미와 해석을 제공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주인의 상, 개, 부스러기에 대한 두오다의 해석은 흥미롭다. 예를 들어 두오다는 주인의 상이 제단과 교회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상을

제단이나 교회로 해석할 경우, 상 아래에 있는 것은 거룩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15-16). 비록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상 아래 있는 것은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는 것이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은총이 머무는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강조했다. 나아가 두오다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지혜로 해석했다. 이럴 경우 빵 부스러기는 먹다 남은 하찮은 먹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참된 지혜이다. 다만 개가 갖는 의미와 관련해서는, 두오다 자신이 비록 개 중의 하나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특별한 해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녀는 오히려 부르짖는 개는 나름대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할 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인내심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이러한 인내심에 기초하여, 두오다는 상 위에 있는 빵, 즉 하나님의 은총에 보다 큰 강조점을 두었다. 그녀는 비록 상의 밑에 머물러 있을지언정 은총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두 개의 시편(78편과 119편)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두오다의 성경해석은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다. 본문에 등장한 이방인 여인은 스스로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개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적극적으로 기다렸다. 두오다의 해석에서 우리는 개로 비유되는 여인이 느낄 수도 있는 일말의 부정적인 이해는 찾아 볼 수 없다. 결코 낙관적이지 않았던 두오다의 당시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면 의아할 정도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본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읽어내야 할 것인가? 우선 두오다의 본문 해석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 이방인 여인에 대한 두오다의 해석은 아들 윌리엄을 독려하여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추구하자고 격려하는 맥락에서 등장한다. 동시에 이는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지혜를 자신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보다 개인적 측면을 강조하는 맥락에 위치해 있다.

이 구절이 위치한 『리베르 마누알리스』 제 1권은 두오다가 지은 자신의 책 이름이 갖는 기원인 ‘DHUODA DILECTO FILIO WILHELMO SALUTEM

LEGE'라는 제목의 첫 구절을 따라 경구적으로 만든 일련의 시, 책 전체에 대한 짧은 서론, 그리고 또 하나의 서문을 담고 있다. 비교적 정교한 서론에 이어 나오는 이 본문이 1권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두오다가 이 본문을 구성하기 위해 적지 않게 고심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해석상의 위치를 통해, 그녀는 비록 “가치가 없고 그림자 같이 연약하지만,” 자신이 힘이 닿는 한 성경을 공부했고 그녀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인간의 무가치함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그러한 이해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두오다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나 받아먹는 개가 아니라 연약한 여인의 입장이지만 사제나 남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오다는 자신을 ‘배우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녀는 자기 지식의 박약함과 지성의 약함을 유독 강조했다(Prologue, 10.3). 물론 이러한 표현은 당대 여성들뿐만 아니라 중세 여성의 자기 묘사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그리고 사실 두오다는 역경으로 가득 찬 세월에 지쳐 실제로 병약했을 수도 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잦은 언급(10.1, 10.2, 10.4)은 그녀가 남편이나 윌리엄보다 먼저 죽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오다는 이방인 여인의 인내와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함으로 자신의 여성성과 ‘평범한 신분’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고 있는 자신을 찾았다. 두오다는 상 위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나 주워 먹는 신학적인 개가 아니었던 것이다.

2. 복종과 갈등: 아버지의 권위와 왕의 권위 사이

루이 사후 왕국의 갈등과 분열을 가장 깊숙하게 느낀 사람 중의 하나가 바로 두오다의 남편과 아들 윌리엄이었다. 새로운 군주를 맞이하면서 윌리엄이 느낀 복종과 갈등의 문제는 왕과 귀족 사이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종교와 정치의 문

제이기도 했다. 위계(位階)라는 주제가 중요해진 당대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듯, 두오다는 위계 개념에 기초하여 군주를 비롯한 지도자들 간의 복종과 갈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네 단계로 구성된 위계에 대한 두오다의 생각은 『리베르 마누알리스』 3권에 잘 나타나 있다. 제 3권에는 신하로서 충성을 담아내는 의무, 조인자의 도덕적 의무, 봉건 세계의 다양한 구성원 범주들에 대한 원리와 덕성의 발전 같은 구체적인 의무가 담겨 있다. 위계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을 담고 있는 총 11개 구절로 이루어진 제 3권은 특정 의무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조언을 짧고 적절한 성경적이고 실질적 논리를 담고 있는 구절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여러 논의와 함께 교훈적 안내와 기도를 동시에 담았다. 이러한 실제적 논의들은 신하로서의 율리암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위계에 대한 두오다의 논의는 한 귀족 여인이 당대의 가족과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두오다에게서 위계와 관련된 조화와 권위의 일차적인 기초는 아버지의 권위와 상(象)이다. 이상적인 아버지 상에 대한 두오다의 이해는 남편 베르나르에 대한 그녀 자신의 이해에 기초하면서, 동시에 곧바로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아버지 상은 창조를 행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기원을 보여주는 동시에(2.2, 3.1), 수도원장이 갖는 권위와 같은 힘을 갖는다(3.2, 3.5). 이를 반영하듯 두오다는 권위에 대한 질서를 (1)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 (2)아버지 베르나르의 권위, (3)왕과 군주들, (4)사제들의 권위라는 네 단계로 나누었다. 흥미롭게도 두오다는 왕과 군주, 사제들의 권위보다 아버지의 권위를 앞세우고 있다. 이 가운데 아버지와 왕의 권위에 대한 두오다의 생각을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보자.

위에서 언급했듯이 두오다에게 있어서 세속적 요소와 종교적 요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회의 모든 올바른 규범과 위계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형성된다. 그리고 삼위일체 아버지의 권위는 지상의 부계적 흐름에 곧바로 반영된다. 그런데 권위와 위계를 나타내는 네 개의 단계 중에서 흥미롭게도 군주와 종교적 사제들에 대한 의무는 상대적으로 뒤편으로 밀려나 있

다.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의무와 비교할 때, 왕에 대한 의무는 오히려 상대적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비교해서 사제들의 권위는 조연배우처럼 보였던 것이다.

이처럼 두오다가 아버지의 역할과 권위를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 같은 복종과 충성의 위계서열에 대한 두오다의 입장은 분명하다. 첫째 모든 것에서 윌리암은 자신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충실해야 한다(3.3-5). 윌리암이 아버지 베르나르에게 가장 크게 빚지고 있는 것은 “적절하고, 충실하고, 그리고 확실한” 존경이다(3.2). 아버지에게 대한 충실성은 참된 지혜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확실하고 사려 깊은 도덕적인 성격 안에서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성장의 기초에는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자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윌리암은 도덕적 감수성을 갖춘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했다. 여기서 아버지의 권위와 위계는 덕의 실천을 담보로 하고 있다.

아버지 베르나르는 윌리암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직책에 있어서도 근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충성의 기원은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소급된다. 아들은 늙은 아버지에게 슬픔을 야기하거나 아버지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동을 행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두오다는 구약의 많은 이미지들을 적절하게 사용했다. 구약에는 충실한 아들과 사악한 아들이 있으며, 각각의 행동과 활동에 따라 세상적이고 영적인 축복과 저주가 내려진다. 야곱과 사무엘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도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다.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갖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축복도 내려진다. 이와 같은 직책과 권위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어머니 두오다의 가르침은 9세기 봉건 체제 아래서 윌리암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를 제공했다.

아버지의 권위와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두오다는 윌리암이 지켜야 할 왕과 군주에 대한 태도를 논했다(3.4). 군주에 대하여는 신중함을 갖고 몸과 영혼을 다해 참된 충성과 정결함을 바쳐야 한다. 샤를르에 대한 윌리암의 충성은 무조건적인 확고함을 수반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도 자신이 섬기는 군주의 직접적

이익만이 아니라 신하인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신중함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두오다의 이러한 가르침이 맹목적인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세기독교에서 군주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충성개념은 매우 전통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롬13:1-2). 그러나 두오다는 무조건적인 복종보다는 정직한 조언을 앞세우고, 올바른 조언을 제공하는 개인의 양심을 강조했다. 위계를 처음 강조한 디오니시우스(Pseudo-Dionysius)에게서도 이러한 양심과 개인에 대한 강조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정당한 과정을 통한 군주에 대한 조언과 충성은 거의 맹목적인 정도인 아버지에 대한 복종과 존경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설명에서 예견되었듯이 두오다는 윌리엄 자신이 처한 도덕적인 애매성과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강조했다. 양심과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한 것이 이러한 배경을 설명해 준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애매성을 극복하면서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데 중요한 것은 덕과 바른 조언을 줄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런 능력의 원천은 개인적인 영성 생활이다. 하나님은 영적인 측면과 함께 세상적인 일상사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두오다는 윌리엄이 성인들과 교부들의 금언과 생애를 본받고 함양하여 덕성을 키울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는 곧바로 교육에 대한 강조와 연결되어 있다. 두오다는 아버지의 권위와 군주에 대한 충성 사이에 발생할지 모르는 긴장을 기독교 영성에 기초하여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두오다는 아버지와 왕에 대한 충성과 더불어, 당대 봉건 위계에 대한 충성 및 다른 귀족들과의 관계를 아들 윌리엄에게 강조했다. 윌리엄이 궁정에서 지녀야 할 “사랑, 자애로움, 봉사”의 정신은 다른 봉건 위계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했다(3.9).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만 다른 위계서열에 대한 충성스러운 복종뿐만이 아니라 개인적 성실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려와 관계, 조화에 대한 강조는 윌리엄과 사제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두오다는 각기 다른 위계간의 차이를 떠나 형제애적인 연합과 일치, 동정심과 상호간의 지지를 대단히 강조했다. 각각 다른 위계 층이 마치 한

마음과 영혼을 가진 것과 같이 말이다.

3. 덕: 정직한 조언을 만들어 내는 것

물론 두오다가 소망한 이상적인 위계질서는 당대 혼란한 사회에서 실제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후에 두오다의 아들 윌리암은 아버지를 따라 샤를 르에게 반항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더군다나 두오다가 소망한 이와 같은 위계가 왕족들에 의해 지켜졌다면, 경건 왕 루이의 아들들이 벌인 처절한 투쟁도 없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와 시대에 대한 두오다의 이해는 자신의 글이 장성한 성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나 맞는 책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담고 있다(10.1). 그녀의 글은 당대 시대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그녀가 중요하게 발전시킨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는 가정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질서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예를 들어 두오다가 사울과 다윗의 투쟁, 요나단의 죽음과 압살롬의 배반에 대해 서술한 부분에서 프랑크 왕족의 정치적 혼란을 읽어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3.8).⁷⁾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서 두오다가 추구한 논리는 간단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아버지는 군주에게 복종하고, 아버지와 군주는 모두 사제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반목이 사라질 것이고 말끔한 위계질서가 회복되고 평화를 찾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10.2).

이러한 혼란스런 상황에서 위계를 따르는데 중요한 것은 덕과 영적 훈련이다. 두오다는 궁정에서의 성공은 도덕적인 일, 실용적인 일, 동시에 종교적인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위계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덕에 기초한 정당한 행동뿐만이 아니라 금욕적이고 종교적인 자세까지 필요하다. 덕과 영적인 훈련이 구

7) 이 책 3.1에서 볼 수 있듯이 두오다는 의도적으로 다윗을 비롯한 왕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강조했다. 이러한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는 경건왕 루이와 그의 세 아들의 경우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의도가 일차적인 독자인 아들의 독서 범위를 넘어 어느 정도나 확대될 수 있을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비되었을 때, 비로소 왕에게 충실한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고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두오다는 아들 윌리암에게 덕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도덕적 발전을 강조했다(4-6권). 두오다는 여기서 시기, 교만, 분노와 같은 일련의 악의 목록들(psychomachia)을 검토하면서 이와 상응하는 인내와 관용 같은 덕성의 발전을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일곱 가지 성령의 선물과 여덟 가지 복을 조합하여 덕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로 설명했다(4.4-6). 물론 악과 덕, 성령의 선물, 그리고 8복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주석학의 중요한 주제이지만, 두오다는 여기에 개인적이고 창조적인 공헌을 담아내었던 것이다.

덕에 대한 두오다의 논의는 ‘시기(envy)’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한다. 두오다는 이를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면서도 젊은 윌리암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논리를 들어 재해석하고 있다. 악한 요소들에 대한 두오다의 설명에서 우리는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 두오다는 악을 설명하는데 지극히 현실적인 예를 사용했다. 둘째, 그녀의 설명은 매우 적극적인 성향을 담고 있으며, 악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그러했다(5.2-8). 셋째, 악과 이에 상응하는 덕에 대한 설명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 옮겨가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악한 종목인 ‘시기’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파괴력이 강하기 때문에 악한 동료들과 교제를 피하라고 강조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악한 동료를 피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했다. 이런 측면은 탐욕과 분노를 설명하는 과정에도 동일하게 등장한다. 이러한 악들을 극복하고 덕을 쌓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세상과 내세를 구별하지 않으며 육신과 영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덕과 악에 대한 설명은 두오다의 전반적인 신앙과 신학적 인식 일반을 잘 드러내 준다.

덕에 대한 두오다의 설명은 성령의 은사와 8복에 대한 설명에서 보다 완결된 모습으로 등장한다. 성령의 은사와 8복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기독교인의

도덕적 발전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는 8복에 앞선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왕국을 창조하기 위한 성인의 의무감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일련의 덕의 발전에 대한 두오다의 설명이 많은 경우 기사, 전쟁무기, 노획물 등 전투적인 용어를 차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신과 남편, 그리고 아들 윌리엄이 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악과 덕에 대한 위에서의 설명과 같이, 두오다의 설명은 개인적인 도덕적 성장과 사회적인 질서라는 두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덕, 성령의 은사, 8복의 조합은 주님에 대한 경건과 두려움을 만들어 낸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질서를 고양하고 평강과 조화를 고양시키는 기독교적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사회적인 정의가 실현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정의가 갖는 장점은 사실상 많다. 그래서 두오다는 윌리엄이 이런 정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가르쳤다. 아울러 그 같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구제와 가정에 대한 강조를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더했다. 특히 구제에 대한 세 단계의 의무에 그녀의 설명은 중요하다. 구제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고, 그 자신의 빈곤한 영혼을 위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구제를 통해 자신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9세기 평신도 여성 신학자

에리우제나(Eriugena)를 비롯한 카롤링거 시대를 풍미한 9세기의 신학자들의 주된 목표는 오랫동안 내려오던 수많은 신학적 주제들을 새롭게 잉태되던 유럽의 현실에서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13세기 아퀴나스(Thomas Aquinas)로 대변되는 스콜라 신학과는 달랐지만, 샤를마뉴에 의해 시작된 기독교사상의 정리와 집대성 작업에 대한 논의가 이 시대 주된 관심사였다. 힝크마르(Hincmar of Reims)와 같이 여성과 이혼에 대한 논문을 남긴 경우도 간혹 있었지만, 많은 신학적 작품은 예정론을 비롯한 전통적인 신학적 사상을 새롭게 정리하고 논의하는데 치중하였다.

물론 전통적으로 중시되어온 신학적인 의제에 대하여 두오다는 그리 독창적인 접근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한 그녀의 설명은 독창적이지 않다. 사실 라드베르투스(Radbertus) 같은 9세기 카롤링거 신학자들은 이 주제를 중심으로 살벌한 신학적 논쟁을 전개했다. 물론 두오다 역시 구원이라는 기독교사상의 항구적인 주제, 특히 아들 윌리암의 구원에 대한 전제를 분명하게 깔고 있기는 하다(10.1, 18-20).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데 성경에 대한 광범위한 주석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리는 두오다에게서 당대 남성 신학자들과는 다른 측면들을 발견할 수 있다.

당대의 남성위주의 중요 신학자들의 담론과 비교할 때, 두오다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녀의 책은 한 귀족계층 여성의 적극적인 삶에 대한 신학을 반영했다. 이에 더하여 그녀의 책은 다분히 실천신학적이고 목회적인 맥락에서 저술되고 사용되었다. 일종의 실천신학적인 두오다의 책은 당대에는 쉽지 않았던 사회 도덕적인 질문과 현실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거침없이 제시했다. 군주와 사제들의 권위의 문제는 당대 시대상황에서 민감한 문제였다. 사제들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듯, 두오다의 책에서 세속적 가치는 종교적 가치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러한 사회성과 적극성은 『리베르 마누알리스』 전반에 드러난다. 이를 위해 두오다는 전통적인 성경이해와 신학적 기초 위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과 문화를 담대하게 불어넣었다. 동 시대에 최고의 신학자 에리우제나의 사상에서 실천적인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오다의 신앙과 신학적인 해석은 보다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실천과 행동은 두오다가 강조한 독서와 성경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두오다는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하는 1권에서부터 바로 행동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나는 네가 이것들에 대한 거룩한 복음의 말씀과 교부들의 저작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추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바르게 행동함으로써, 너는 삼위(三位) 가운데 하나이고 하나 가운데 삼위로 남아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1.5, 42-47).

왜냐하면 성경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기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 예전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렉티오 디비나(Lectio divina)는 실천(praxis)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성경에 대한 이해는 말로, 말은 행동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말로 구하고, 그리고 너희 행동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라. 이러한 세 가지 방법으로 행동함으로, 너는 사랑이라 불리는 완성의 높이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2.2, 29-31).

두오다는 삶의 정황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일들이 성경본문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점차 당대의 삶과 신학적 대화를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예를 들어 8복의 가르침은 윌리암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책임과 함께 잘 드러난다. 이러한 행동은 물론 다른 신학자들에 비해서 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신, 인간, 세상적인 삶과 신앙이라는 전체적인 신학적 구조에서 비교적 충실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면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세와 내세에 대한 균형 잡힌 감각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삶의 현실에 기초한 두오다의 실천적 신앙 이해는 성경의 면면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종종 자신만의 특징을 드러내 준다. 그녀가 즐겨 사용한 은유적인 기법과 구약과 신약을 잇는 모형론적 기법은 우리의 주목을 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그녀 자신이 성경해석에 나름대로의 자유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7.1, 16-18; 3.10, 49-58). 이러한 방법을 통해 두오다는 하늘과 현실을 흥미롭게 이어주었다. 지상적 실제들은 천상의 실제들을 가르친다. 지상의 것들을 적절히 사용하고 향유하는 것은 천상의 삶을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영적인 차원은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신과 인간의 수직적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 관계와 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이 두오다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세속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점이다.

실천과 구체적 행동에 대한 두오다의 강조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구속과 사회의 완전함이라는 차원에서 전개되며, 이는 현실 가운데서의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4.4, 20-23). 또한 역사 가운데 진행되는 영적 투쟁

은 기독교 예전적인 구조와 순서, 그리고 성례전적인 상징 아래서 진행된다. 더 나아가 역사 혹은 역사적 행위 자체가 종종 예전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두오다는 9세기 평신도 여성신학자로서 역할을 독특히 감당해 냈던 것이다.

IV. 결론

두오다는 9세기 중반에 남편을 대신해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녀는 인질로 잡혀간 두 아이들을 위해 아프지만 절제된 가슴으로 긴 교육적 편지를 썼다. 특별히 어린 아들 윌리엄을 위한 두오다의 교육적 성격의 글은 유럽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던 9세기 중반 한 귀족 여인의 눈을 통한 당대 기독교인의 자기 인식과 세계 인식의 단면을 잘 보여주었다.

두오다는 당대 드물게 글을 남긴 여성이었다. 그녀 자신은 종교 전문가나 수녀원 출신도 아닌 일반 평신도였다. 그녀는 전통적인 종교전통을 훼손하거나 벗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당대 주류를 이룬 남성 신학자들이나 사제들과 비교해 볼 때 그녀의 글은 적지 않은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두오다는 변방에 위치한 평신도 지도자였지만 자신이 여타 남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신의 은혜에 속할 권한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를 먹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졌던 것이다. 두오다는 절박한 현실에서도 남편의 권리가 보다 중요하다고 아들 윌리엄에게 가르쳤고,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올바른 조연과 개인의 양심을 간직할 것을 아들에게 부탁했다. 아버지 베르나르의 권위를 왕이나 여타 군주보다 앞에 놓은 것은 바로 두오다의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두오다는 평신도 지도자였지만 일곱 가지 덕과 여덟 가지 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세속적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 하나의 짝을 이루어 굴러가듯이, 덕과 악도 짝을 이루어 상응하면서 삶의 현실을 꾸며 나간다. 두오다의 글 가운데 중요

한 요소 중의 하나는 그녀의 가르침이 갖는 실천성과 적극성이다. 두오다의 교육에 대한 강조 역시 실천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실천성이야말로 에리우체나 같은 당대 남성들이 주장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두오다는 9세기 중반을 읽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과 렌즈를 제공해 준다.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를 발전시키거나 종교적인 운동을 전개하지는 않았지만, 9세기라는 중세 초기의 기독교를 읽어내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오다를 9세기 신학을 새롭게 해석해주는 평신도 여성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두오다, 윌리암, 덕, 교육, 『리베르 마누알리스』, 베르나르, 신

참고 문헌

1) 1차 문헌

Dhuoda. *Manuel pour mon fils; introduction, texte critique, notes par Pierre Riché; traduction par Bernard de Vregille et Claude Mondésert, S.J.* Paris: Éditions du Cerf, 1975.

Dhuoda. *Handbook for William: A Carolingian Woman's Counsel for Her Son*, translated and with an introduction and afterword by Carol Neel. Washington, D.C.: Catholic U of America P, 1999.

Godman, Peter. ed. *Poetry of the Carolingian Renaissance*. Norman: U of Oklahoma P, 1985.

2) 2차 문헌

김재현, 「“악마로 이끄는 통로인가,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여성연구: 기독교의 기원에서 1500년까지」, 『종교와 문화』 제 11호 (2005): 79-103.

김재현, 「중세초기 기독교 여성연구: 라트쿤트에서 호르츠비트까지」, 『한국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 제 14권1호(2006): 1-31.

김재현, 「“Mulieres vulgariter dictae beguinae”: 메히트힐트(Mechthild of Magdeburg)를 중심으로 한 베긴회 연구」, 『한국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 제 12권 1호(2004): 43-65.

Allen, P. Sister. *The Concept of Women: The Aristotelian Revolution, 750-BC-AD 1250*. Michigan: Eerdmans, 1985.

Duckett, E. Shipley. *Carolingian Portraits: A Study in the Ninth Century*. Ann Arbor: U of Michigan P, 1962.

Evans, G.R. *Medieval Theologians*. Oxford: Blackwell, 2001.

Gies, Francis. *Women in the Middle Ages*. New York: Barnes & Noble, 1980.

Heene, Katrien. *The Legacy of Paradise: Marriage, Motherhood, and Woman in Carolingian Edifying Literature*. New York: P. Lang, 1997.

Laistner, M.L.W. *Thought and Letters in Western Europe: A.D. 500-900*. Itacha, N.Y.: Cornell UP, 1957.

Marie Anne Mayeski, *Dhuoda: Ninth Century Mother and Theologian*. Scranton, Pa.: U of Scranton P, 1995.

McKitterick, Rosamond. *The Carolingians and the Written Word*. Cambridge: Cambridge UP, 1989.

McKitterick, Rosamond. *The Frankish Kingdoms under the Carolingians, 751-987*. London: Longman, 1983.

Peterson, John M., ed. *Handmaids of the Lord*. Kalamazoo, Mich.: Cistercian Publication, 1996.

Dhuoda's Liber Manualis:
A Carolingian Woman's Instruction to Son

Abstract

Jae-Hyun Kim

In the absence of her husband, Bernard of Septimania, Dhuoda played an important role -militarily, economically, and socially- in order to keep her family and realm. After her two sons were captured by King Charles the Bald, Dhuoda wrote a lengthy letter to her son, William, which was eventually known as *Liber Manualis*. This letter is educational, instructive, and pious in its form and character. In this letter, we have a glimpse of the worldview and religion of the Carolingian people of the ninth century through the eyes of a woman.

Dhuoda was neither a professional theologian nor a nun. She, however, left an exceptional sample of writing from that period. Even though she was quite traditional in interpreting Scripture and the writings of the Fathers, Dhuoda letters were quite unique. Her writings can be favorably compared to the writings of dominant male theologians and priests at that time.

Left isolated in the frontier between Spain and France without her husband, Dhuoda believed that she had as equal a right and accessibility to the Divine grace as male religious leaders. Even though she had to eat the crumbs from the master's table, she was convinced that God's grace equally belonged to her. In *Liber Manualis*, Dhuoda taught that William should put the right of his father Bernard before that of his royal master. In serving masters and lords, she advised that William should always follow his own conscience and proper counseling. As a lay female leader, Dhuoda compared in depth the seven virtues and eight blessings. As secular and spiritual realms go together, virtue

and vice are mingled together in daily life. Dhuoda was very active and practical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Scriptural passages to daily life. It is not so easy to find such practicality among the ninth century male theologians.

In this sense, Dhuoda's book provides a useful lens and perspective to understand ninth century Carolingian religion and society. Although she did not articulate any systematic theology and terminology, Dhuoda brought up routine issues of society and religion from female perspective. In this sense, I would ascertain that Dhuoda was a female theologian who offered a fresh interpretation of the society and religion of her time.

Key Words

Dhuoda, William, Virtue, Encheiridion, *Liber Manualis*, Bernard, God